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주현절 후 셋째 주 】

|                  |           |
|------------------|-----------|
| 전 주 .....        | 반주자       |
| 은총을 기리는 노래 ..... | 비 전 ..... |
| 예배로의 부름 .....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5. 면류관 가지고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옵니다. 어둡고 쓸쓸한 일들이 간단없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은 어지간히 무더졌습니다.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도 무덤덤하고,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분노할 줄 모릅니다. 주님, 공들여 첫 사람을 만드시던 그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랑의 매로 쳐서 꾸짖어 주시고, 악인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사랑과 이해와 감사의 끈으로 묶어 주시어, 함께 살아감이 인생의 본질임을 확연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과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1 ..... 인도자

♠ 교 독 문 ..... 7. 시편16편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I. 황경순 집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211. 그 참혹한 십자가에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12:15-32 ..... 인도자

II. 히10:19-25 ..... 이한림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은유한 자녀 ..... 김재흥 목사

II.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 다함께

|                   |                         |     |
|-------------------|-------------------------|-----|
| 헌신의 찬송 .....      | 449. 이 세상의 친구들 .....    | 다함께 |
| 헌금봉헌 .....        |                         | 다함께 |
| ♠ 봉 헌 송 .....     |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 | 다함께 |
| ♠ 봉헌 및 목회기도 ..... |                         | 인도자 |
| 공동체 소식 .....      |                         | 인도자 |
| ♠ 평화의 인사 .....    |                         | 다함께 |
| ♠ 결단의 찬송 .....    |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   | 다함께 |
| ♠ 보냄의 말씀 .....    |                         | 다함께 |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옥체로 열어놓으신 생명 길로 힘써 나아가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살맛을 되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길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영원에 잇댄 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 에스겔 통독 강좌(38) | 신명기 강해(29)  |
| 기도 : 정현주 집사   | 기도 : 최인환 선생 |

| 다음 주<br>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김기석 목사<br>김재흥 목사 | 유경순 집사<br>한완식 장로 | 인도자<br>김정길 권사 |

|    |      |                         |
|----|------|-------------------------|
| 1월 | 영접위원 | 조병무 이인웅 김용길 곽혜자 허정윤 박미영 |
|    | 헌금위원 | 윤정덕 김준호 안길상 임창선 김성자 송양진 |

## 사랑은 잘 듣는 것이다

딸만 6명인 어느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로부터 예쁜 인형을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6명이고 인형은 하나라서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엄마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오늘 제일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이 인형을 주겠다.”

그 말을 듣자 여섯 딸이 하나같이 소리쳤습니다.

“에이! 그러면 아빠 거잖아!”

아이들 보기에

아빠가 엄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보일 정도이면

행복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들어주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삶은

‘들어달라고 떼쓰는 삶’입니다.

‘알아주는 삶’에는 행복이 깃들고,

‘알아달라는 삶’에는 불행이 깃듭니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하고 고생을 알아주는 관계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왜 내 고생을 몰라줘요!” 하고 고생을 알아달라는 관계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라는 생각이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생각은

“내가 좀더 들어주자!” 는 생각입니다.

‘들어주는 삶’ 에 ‘붙들어주는 삶’ 도 있게 되고  
‘만들어주는 삶’ 도 있게 됩니다.  
잘 들어줄 때 사랑하는 대상은 견고한 인생으로 만들어져갑니다.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고,  
입보다 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높이고 존중할 때  
행복은 결코 비켜가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은 귀가 하나이고 입이 두 개인  
괴상망측한 외계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소리는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차는 휘발유로 움직이고,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정신은 듣는 소리로 움직입니다.  
많이 말하면 정신적 자산은 소모되고,  
많이 들으면 정신적 자산은 비축됩니다.  
잘 말하는 삶보다 잘 듣는 삶이 정신의 키를 크게 만듭니다.

정신의 키가 작은 사람은  
“No!” 라는 말을 많이 할 구실을 찾습니다.  
반면에 정신의 키가 큰 사람은  
“Yes!” 라는 말을 많이 할 구실을 찾습니다.  
“Yes!” 라는 말은  
많이 받는 사람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려고 할 때 이해의 폭도 커지고,  
친구의 폭도 커지고, 인생의 폭도 커질 것입니다.  
잘 듣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이지만  
잘 듣지 않고 오해하고 실망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입니다.  
사랑은 잘 듣는 것입니다.

## 손(2)

나누는 손은 아름답지만, 가난하여 나눌 것이 적은 손은 순정합니다. 가난보다 더 깊은 기도는 없음을 빈손이 알려줍니다. 일하는 손도 아름답지만 쉴 때 쉬면서 그 손을 조용히 살피는 성찰의 시간도 소중한입니다. 일만 하다 죽으라는 인생 아닌 것을 빈손의 묵묵함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몸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가는 손에게 몸이 하는 대답도 있어야 합니다. 존재가 두루 무상해서 하루하루 나이 먹다 보면, 힘없이 앙상해진 손을 가슴에 품어 안고 살아온 날들 되돌아보게 될 테지요. 손이 기억하는 한 평생이—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할 수 있을까? 가난을 위해서 쉬지 말고, 맑고 투명한 존재와 마음을 위해 쉬는 손을. 나태해진 손이 아니라 성찰과 기도로 간절해진 손을 꿈꾸어야 합니다. 마음 공간이 넉넉해지면 손은 가난 속에서 오히려 여유로워집니다. 그것을 일컬어 청빈이라 합니다. 청빈의 손끝을!

짐승의 앞발은 활쫓고 때리고 찢고 내달립니다. 사람의 손도 때로 그러기는 하지만, 다툼 없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손들이 말리고 지키고 가꿉니다. 사람의 손은 화해를 말할 줄 압니다. 내 손이 비굴하게 손 비벼 애걸하기 바라지 않는다면 네 손이 항복을 말하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 까닭입니다. 두려움이란 놈은 폭력과 비겁의 두 얼굴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에 떠는 손과 무력하게 마주 잡은 손조차 무서워서, 죽임을 지시하고 교사하는 손이 있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는 존재는 하수인입니다. 권력의 손은 상대를 지목하는 깨끗한 손가락질입니다. 화살표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춤사위도 손끝으로 만드는 것을.

—이철수(판화가)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     |     |
|--------------------|--------------------|--------------------|------------------|-----|-----|-----|-----|
| <b>담임목사</b> : 김기석  | <b>부담임목사</b> : 김재흥 |                    |                  |     |     |     |     |
| <b>원로목사</b> : 박정오  | <b>소속목사</b> : 한인철  | <b>원로전도사</b> : 박옥식 |                  |     |     |     |     |
| <b>원로장로</b> : 방현복  | 김춘려                | 전영규                | 김성한              |     |     |     |     |
| <b>장 로</b> : 윤정덕   | 강인식                | 김철수                | 조병무              | 한완식 | 구성실 | 이용한 | 윤석철 |
| <b>성가대장</b> : 한상의  | <b>지휘</b> : 윤주원    | <b>반주</b> : 최윤선    | 안홍숙              | 한선희 | 김수진 |     |     |
| <b>관 리 인</b> : 노용래 | <b>운전기사</b> : 오진훈  | <b>도서관</b>         | <b>관 장</b> : 이순정 |     |     |     |     |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훈동 유경순 김종훈 안경숙 김용진 박효선 김용원 이한림 김명희  
이광용 형인순 박정숙 강인식 김정숙 정복순

### 월정헌금:

전나래 김정섭 정원석 김현영 임수연 임원민

### 감사헌금:

하재두 엄순임 박옥순 전영규 김경수 김필순 박혜경 조옥분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정섭 최희영    구도헌금: 김기석

## ◇ 속 회 보 고 ◇

| 속 명     | 인 도 자 | 속 장   | 모 인 곳 | 다 음 장 소 |
|---------|-------|-------|-------|---------|
| 예루살렘    | 유 영 남 | 차 혜 심 | 심     | 심       |
| 베들레헴    | 노 순 옥 | 정 경 레 |       |         |
| 안 디 옥   | 임 정 자 | 곽 권 희 |       |         |
| 가 나 안   | 문 영 혜 | 박 경 선 |       |         |
| 갈 릴 리   | 조 병 주 | 박 애 순 |       |         |
| 베 다 니   | 임 창 선 | 박 흥 재 |       |         |
| 시 온     | 박 효 선 | 허 정 윤 |       |         |
| 엠 마 오   | 최 속 화 | 권 미 정 |       |         |
| 에 베 소   | 이 순 정 | 장 혜 속 |       |         |
| 빌 립 보   | 구 성 실 | 박 현 우 |       |         |
| 가 버 나 움 | 구 명 자 | 안 흥 속 |       |         |
| 나 사 렛   | 백 혜 속 | 정 옥 영 |       |         |
| 갈 라 디 아 | 송 양 진 | 유 경 순 |       |         |
| 고 린 도   | 이 영 란 | 이 증 자 |       |         |
| 다 메 섹   | 박 혜 경 | 최 영 혜 |       |         |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1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2. **간담회** : 선교회장 간담회가 오후 집회 후에 있습니다. 선교부 임원들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 : 교육부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 올해의 교육 목표를 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집회 후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4. **문학제** : 교회학교 중고등부가 마련한 문학제가 토요일(29일) 오후 5시부터 열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임원친목회** :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새 임원들을 환영하고, 친교를 통해 임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친목회가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6.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25일(화) 일신교회에서(오전 10시), 남선교회 계삭회가 정동제일교회에서(오후6시) 열립니다.
7. **별세** : 노정숙 권사님께서 지난 15일 향년 84세로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8. **신앙실천** :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십시오.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배출하십시오.

\* 헌물 : 신도리코 복사기 1대(신천 권사 일동)

\* 헌화 : 박시내 집사 (생일)

##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6:0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